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원 준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Yoo Joan Paek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 원 준

김원준의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이 봉 주 (인)

부위원장 하 정 화 (인)

위 원 Yoo Joan Paek (인)

국문초록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원준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로만 인식될 뿐 아니라, 무능력한 존재로 자리 잡아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비장애인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장애인을 향한 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저하해 왔다. 그 결과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자기 낙인과 우울, 그리고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낮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회 참여 활동 중 하나인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개인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보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을 때, 그들의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심리 자원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Musick and Wilson (2003)의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5차 조사)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정적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이론적으로는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장애의 의료적 모델이 아닌 사회적 장애 모델의 관점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Musick and Wilson (2003)의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대규모 표본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 유형의 장애인이 아닌 장애 유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실천적으로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 참여'의 관점을 기반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에서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져야 하는 것, 장애인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다음으로는 장애 및 봉사의 유관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데이터의 관리이다.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의 정의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활용한 패널데이터를 횡단적으로만 활용한 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점, 자원봉사참여 여부뿐 아니라 자원봉사 시간과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점,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지 못한 점이 있다.

주요어 :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

학 번 : 2020-2295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 문제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8

제 1 절. 자원봉사 8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특성..... 8

2.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이론 및 경험적 연구..... 9

제 2 절.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18

1. 장애인: 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기..... 18

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및 영향 요인..... 22

3.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24

제 3 절.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29

1. 자원봉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29

2.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 ... 31

3.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32

제 3 장.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34

제 1 절. 연구 가설 34

제 2 절. 연구 모형 35

제 4 장. 연구 방법 36

제 1 절. 분석 자료 및 변수 36
1. 분석 자료 36
2. 변수의 정의 37
제 2 절. 분석 방법 43
제 5 장. 연구 결과 45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45
1. 주요 변수의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45
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7
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50
제 3 절. 자원봉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53
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53
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54
3. 효과 분해: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59
제 6 장. 결론 61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61
제 2 절. 연구 결과 논의 63
1.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63
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66
제 3 절. 연구의 함의 69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69
2. 연구의 실천적 함의 71
3. 연구의 정책적 함의 74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8
참고 문헌 81
부록 94
ABSTRACT 96

표 목 차

[표 1] 변수의 종류 및 측정 방법 41
[표 2] 주요 변수의 빈도 분석 46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47
[표 4]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5]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52
[표 6] 측정 모형 적합도 54
[표 7] 구조 모형 적합도 55
[표 8] 구조 모형 분석 결과..... 56
[표 9] 최종 분석 모형의 효과 분해 60

그 림 목 차

<그림 1>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 모형 13
<그림 2> 연구 모형 35
<그림 3> 주요변수 간 구조적 관계(최종 분석 모형) 6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2020년 12월 기준 2,633,026명으로 1992년 242,419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 보건복지부, 2020). 고령화 및 등록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손상으로 바라보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으나, 1976년 UPIAS(Union of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의 '장애의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d of Disability)'와 1980년 Finkelstein의 '태도와 장애인(Attitudes and Disabled People)', 그리고 1983년 마이클 올리버를 통해 '사회적 장애 모델'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억압 및 배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김진우, 2007; Barneset al., 2017). 이는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의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하지만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보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 자체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것은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에서 나타난다.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당사자 본인이 경험한 우리나라의 차별 인식은 34.8%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오욱찬, 2018). 즉 장애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차별은 줄었으나, 구조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및 배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무능력, 결핍 등 부정적인 편견 및 낙인이 장애인을 배제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박미숙, 2005; 신유리 외, 2013). 장애인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뿐 아니라 교육, 사회서비스, 정보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강동욱, 2002; 신유리, 2012). 이러한 구조적 낙인과 배제, 차별은 장애 당사자의 사회 참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객체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의 낙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가치 절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자기 낙인(self/internalized stigma),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한다(이지수, 2011; 전지혜, 2010; Corrigan & Kleinlein, 2005). 실제로 다수의 연구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 경험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우울, 낮은 삶의 질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태일 & 김수용, 2009; Hackettet al., 2020). 특히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서는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 및 자살생각률이 전체 인구의 수준보다 각각 약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장애인은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장애인 스스로 내재함으로써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며, 삶의 질 또한 낮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개선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사회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사회 참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이 경제, 종교, 정치, 정책, 사회봉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김승호 외, 2016; 류시문, 2004).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대중과 접촉하며, 주체적으로 활동할 때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이민화, 2015).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역할을 갖는 것은 낙인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과 우울감에 회복력이 생기며 더 큰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Shih, 2004). 본 연구는 무능력하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에서 서비스 주체로 인식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참여 활동 중 주체성의 성격이 강한 자원봉사를 장애인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장애인의 삶을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참여 활동 중 하나인 자원봉사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고재욱 외 (2017)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하며,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향상됐으며, 공동의 이익에 대한 존중을 함양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할 확률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자원봉사는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을 향상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and Musick, 1999). 결과적으로 자원봉사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을 증가하고 우울감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은희 & 강상경, 2014; Appau & Churchill, 2019; Musick & Wilson, 2003; Thoits & Hewitt, 2001). 장애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자원봉사를 통해 목표 형성, 자아존중감 향상, 낙인 극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사회 통합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Kruithofet al., 2021; Lindsay, 2016).

하지만 이러한 자원봉사의 효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비장애인보다 현저히 낮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0년의 자원봉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2020년 1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33.9%로 나타났다(이원규 외, 2020). 그러나 장애인의 자원봉사 및 종교활동 참여율은 17.8%(김성희 외, 2017),

자원봉사만의 참여율은 3.9%(김성희 외, 2014)로 보고되었다. 비록 17년의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가 자원봉사만의 비율을 보여주지 않아 구체적 수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14년의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인구보다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자원봉사가 공동체 의식 및 시민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고재욱 외, 2017; Wilson and Musick, 1999),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더 성숙한 시민 사회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의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장애인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영향 요인 및 동기를 살펴본 연구,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인한 임파워먼트 효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성 및 대인관계, 자원봉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 그리고 장애인을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용할 방안을 연구,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강경숙 외, 2012; 김기태 & 이경희, 1998; 김미희, 2017; 김수진, 2013; 김순호, 2008; 이성은, 2009; 이종화 & 손영은, 2020; 임인택, 2012; 정운석, 2005; 최명민, 2004). 이는 장애인을 연구하는 학계에서조차 장애인을 서비스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 향상, 우울감 감소 등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일부이며, 다수의 연구가 특정 장애를 대상으로 하거나 소규모 설문조사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가치를 실현하고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인정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장애 당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원봉사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이 자원봉사자로의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를 통해

관계망 형성을 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감이 향상되는 것이다(Midlarsky, 1991; Musick & Wilson, 2003; Thoits, 1983).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의 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 사회 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향상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됨을 주장한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으로 설명된다(Musick & Wilson, 2003).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되며(Blascovichet al., 1991),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역량 및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Bandura & Wessels, 1994). 타인을 돕는 행위로의 자원봉사는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를 통해 형성된 여러 관계망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원봉사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Brownet al., 2012; Midlarsky, 1991; Mülleret al., 2014; Musick & Wilson, 2003). 또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은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신권섭 & 조인주, 2013; Linet al., 1999), 이러한 배경에서 높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umeisteret al., 2003; Capraraet al., 2006; Paradise & Kernis, 2002; Siddiqui, 2015). 따라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자원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자원봉사라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대상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여러 자원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심리 자원의 매개 효과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경험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심리 사회적 자원 이론'을 토대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강화되는 심리 자원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와 사회가 장애인을 서비스 주체로 바라보지 않아 장애인의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규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는 소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웠던 반면,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 조사인 장애인 고용 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저자는 자원봉사의 효과로 장애인의 삶을 개선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장애인이 더는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닌 동등한 주체로서의 시민으로 자리 잡음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2장의 1절에서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개념 논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를 연결해주는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후 2절에서는 장애인의 삶과 자원봉사를 논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배제된 장애인의 서비스 주체로서의 전환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원봉사를 연결하여 설명한다. 3절에서는 자원봉사,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설정한다. 4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어떤 자료와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할지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다음 5장에서는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설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자원봉사

1. 자원봉사의 개념 및 특성

자원봉사는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Smith et al. (2006: 245)의 비영리 영역의 사전에 따르면 자원봉사란 “공공이나 특정 집단에 혜택이 되면서 금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 가족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행위”이다. Wilson (2000: 215)는 “자원봉사는 도움을 주는 활동들의 일부이며,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 그룹 또는 대의명분을 위해 자유롭게 시간이 주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Van Willigen(2000: S308)은 자원봉사자는 “법적, 가족적, 우정적 의무에 의해 자신에게 구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목적으로 무급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자원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인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발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이인수, 2001 재인용).

Smith et al. (2017: 61)을 통해 자원봉사의 개념적 특성도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란 “(a) 비강제적이며, 자발적(자유의지)인 활동이나 노력이며, (b)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벗어난 개인, 단체, 상황을 향하여 개인에 의해 움직여지며, (c) 개인, 단체/조직, 지역사회, 더 큰 사회 또는 생태계에 어느 정도 규모로 도움이 되며, (d) 수행되는 활동의 시장 가치에 대해선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지 않고, 순 비용을 자원봉사자에게 남겨두는 것”이라 하였다. Dekker et al. (2003: 1)에서는 자원봉사가 “비의무적이며, 사회 전체나 특정 집단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며,

무급이며, 조직된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원봉사는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의 자원봉사가 존재한다. 자원봉사는 크게 공식적 형태의 자원봉사와 비공식적 형태의 자원봉사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공식적(formal) 형태의 자원봉사는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공식적(informal) 형태의 자원봉사는 기관의 맥락 밖에서 개인에 의해 실천되는 형태를 의미한다(Lee & Brudney, 2012).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도와주고 돌보는 비공식적 도움을 보는 관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Smith et al. (2017)과 다른 학자들의 정의처럼, 다수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친구를 도와주는 형태의 도움은 자원봉사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원봉사의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자원봉사는 공통으로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가성을 바라지 않는 공적인 활동으로 정의한다.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자원봉사의 유형도 나뉘어지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세 가지 특성을 보인 '자원봉사'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이론 및 경험적 연구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으로는 활동 이론, 역할 정체성 이론, 심리 사회적 자원 이론 등의 이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 사회 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증가함으로써 삶의 질이 개선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의 관점을 토대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이론들 또한 자원봉사의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이 어떠한 과정으로 만족감을 주는지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논하기에 앞서, 활동 이론 및 역할 정체성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활동 이론은 주로 노년층에 적용되는 이론이며, 생산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인들이 사회와 사회적 역할에서 고립된 노인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권현수, 2009; Van Willigen, 2000).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하여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들의 사회참여, 여가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은 우울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권현수, 2009; 김정옥 & 박자영, 2007; 배진희, 2009).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기반으로 한 역할 정체성(Role Identities) 이론은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역할의 부족과 관련이 있고 정체성과 역할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쉽게 표현하면, 역할 정체성은 역할 관계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Thoits, 2012). 다양한 역할을 갖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 목적과 의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역할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없거나, 친밀한 관계가 많지 않을 경우 우울증, 정신 질환,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hoits, 1983). 실제로 Musick et al. (1999)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정체성, 충분한 의미 등의 요인들이 형성되며, 이들이 자원봉사자의 죽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역할 정체성의 개념이 사회 구조 및 사회 관계망 속에서 정립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뒤르켐의 자살 이론과 유사하다. 뒤르켐은 사회적으로 통합된 집단의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행위 규칙은 집단 구성원에게 삶에서의 확신 및 목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Thoits, 1983 재인용). 즉 사회 집단의 통합 정도는 개인의 역할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살과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역할 정체성은 삶의 목적 및 의미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 Thoits (2012)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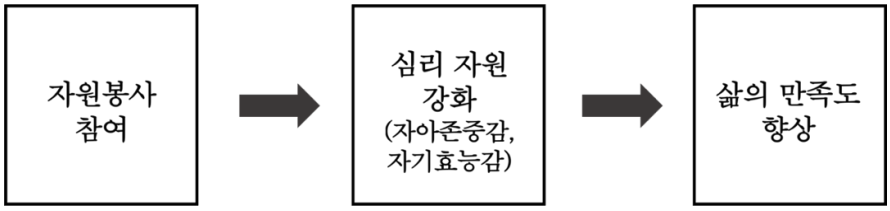
자원봉사와 역할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감의 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자로의 역할 정체성을 강화함에 따라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Thoits (2012)는 자원봉사자 역할이 삶의 목적 및 의미를 부여하면서 안녕감을 증진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서 역할 정체성은 자원봉사자라는 역할이 나를 얼마나 설명하며, 다른 역할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렇게 활동 이론, 역할 정체성 이론은 자원봉사자라는 역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역할 상실을 겪은 개인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변화된 장애인의 심리 상태가 자원봉사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앞서 논의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자원이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주는 기제로 작용하는 점을 생각한다면(신권섭 & 조인주, 2013; Lin et al., 1999),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노출되어있으며, 삶의 질이 낮은 개인에게는 심리 자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심리사회적 자원이론이다.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인한 개인의 심리 및 사회자원의 변화가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살피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후 개인의 심리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으로 활용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은 자원봉사가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을 증가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논의된다(Musick & Wilson, 2003). 이 이론은 Lin et al. (1999)의 사회 구조 내에서의 지위 – 지역 공동체의 단체 참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와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에서

파생되었다. 즉, 사회구조 내의 지위가 소속감 및 사회 정체성을 제공하며 그 결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신감 같은 인지적 능력을 증진하여 삶의 질이 개선됨을 설명한다. 또한 인간은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중요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활동에 몰두하고 개인의 능력에 대해 지각을 함으로써 자신이 삶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Midlarsky, 1991). 이러한 과정은 긍정적 자기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Musick and Wilson (2003)은 그것의 하위 범주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은 자원봉사와 개인의 안녕감 관계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통해 설명됨을 주장한다. 즉 자원봉사는 개인의 안녕감을 향상하지만,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사회적 자원과 안녕감의 관계 또한 앞서 논의한 뒤르켐의 자살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뒤르켐에 따르면 사회 통합의 정도가 높고, 응집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 간에 지속적 관념 및 정서의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들을 스스로에게만 맡기지 않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상호 간의 정신적 지지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Durkheim et al., 2005: 217). 다수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Berkmanet al., 2000; Houseet al., 1988; Thoits, 1983).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 모형

Musick and Wilson (2003)은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기반으로 자원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자원봉사가 우울감을 낮춘 직접효과는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Thoits (1983)의 역할 정체성 이론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Wilson and Musick (1999)에서도 자원봉사의 효과는 생애 주기에 따라 조절되면서 노인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Newmann and Rutter (1983)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역할 정체성을 가진 청장년층에 비해 노인은 은퇴 이후 역할 상실이 발생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역할 정체성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의 효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심리사회적 자원이론을 제시한 Musick and Wilson (2003)의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구자들이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을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자아존중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는 Musick and Wilson (2003)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이 3가지 문항으로 측정되어 측정 오류의 문제일 수 있다. 위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58로 낮은 신뢰도를 띄었다. 특히 Brown et al. (2012)에서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안녕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면서 Musick & Wilson (2003)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가 부재한 원인으로 측정 오류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rown et al. (2012)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신뢰도 계수가 0.87로 나타났기에, 자아존중감 척도의 낮은 신뢰도에 의해 Musick & Wilson (2003)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후속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심리자원 변수들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정신섭 & 장혜진, 2015; Brown et al., 2012; Müller et al., 2014). Brown et al. (2012)에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안녕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했고, Müller et al. (2014)는 55~74세 집단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신섭 & 장혜진 (2015)도 자원봉사와 삶의 질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해외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원봉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주관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도를 설정하여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경향이 많았다. 자원봉사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한 연구로는 Rietschlin (1998)와 Krause et al. (1992)의 연구가 있다. Rietschlin (1998)은 자원봉사와 같은 자발적 집단의 소속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규명하였는데, 집단 구성원들은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낮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임으로써 자발적 집단 소속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Krause et al. (1992)은 타인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한다는 과정을 기반으로, 종교 및 정치, 노동 영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통제감 상승 및 우울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우울감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통제감 상승을 통한 우울감이 감소하는 간접효과만 존재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 및 개인의 안녕감 향상을 검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Thoits (2012)는 역할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로서 역할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립될수록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게 됨으로써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Appau and

Churchill (2019)는 공식적 봉사활동과 공식적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봉사활동으로 나누고, 자원봉사의 빈도 또한 고려하였는데,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체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공식적 봉사활동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Van Willigen (2000)은 자원봉사 시간 증가가 모든 연령층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Van Willigen (2000)은 생애 관점에서 접근하여 60세 미만의 청장년층과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비교하였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체는 삶의 만족도에 동일하게 영향을 주었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시간에 따라 두 집단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장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 아니라 자원봉사 범주와 시간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도 나타났다. 청장년층에선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주당 2.7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할 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노년층 집단에선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에 따라 자원봉사의 영향력은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다수의 연구는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경험적으로 지지하지만,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좋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Thoits and Hewitt (2001)은 선별 효과(Selection Effect)와 사회적 원인 효과(Social Causation Effect)를 기반 자원봉사 활동과 개인의 안녕감의 호혜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별 효과를 통해 개인의 안녕감은 자원봉사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원인 효과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행복감, 만족감, 자존감, 신체적 건강이 상승하며 우울감이 낮아짐을 규명하면서 한 방향이 아닌 양 방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횡단 연구는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의 장기적 변화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아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종단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Piliavin and Siegl (2007)은 위스콘신 지역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빈도와 지속성이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통합의 정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즉 개인의 역할 및 관계망이 적을수록 자원봉사의 효과는 안녕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지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and Pai (2010)는 미국의 American's Changing Lives의 종단 자료를 활용,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우울 궤적에 미치는 영향 및 연령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원봉사의 역할은 우울 수준의 초깃값에 부적 영향을 주고 궤적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만 우울 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더 빠르게 감소함을 파악하였다. 이는 앞서 Musick and Wilson (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청장년 계층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들의 직업 및 가족 역할의 연장선임에 반해 직업과 가족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 상실로 인해 노인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ndeen, 1990).

자원봉사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Russell et al. (2019)는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원봉사의 효과를 첫 번째 시기(Time 1)와 두 번째 시기(Time 2)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Time 1에서 측정된 낮은 자아존중감이 Time 2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낮추지만, Time 2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변화에 자원봉사가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끼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정은희, 강상경(2014)의 연구에서 Kim and Pai (2010)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의 초깃값이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7년 동안 유지됨을 확인했다. 추가로 연령 집단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초기 성인기, 중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집단별로 자원봉사와 우울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 성인에 속한 개인들의 우울 수준은 자원봉사에 의해 변하지 않았지만,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속한 개인들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초기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된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원봉사와 안녕감,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 관계를 중재해주는 요인과 그 과정은 이론에 따라 상이하지만, 횡단 및 종단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는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유형, 시간, 지속성의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역할 정체성이 적은 집단에게는 자원봉사를 많이 할수록 그 효과도 증진됨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자원봉사의 형태와 기여 정도에 따라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원봉사의 참여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명백하게 보인다. 특히 타인을 도와주는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은 사회 내에서 맡은 역할 자체가 적은 집단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에 의심의 여지는 없기에 사회 참여로의 자원봉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제 2 절.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1. 장애인: 서비스 대상에서 벗어나기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사회가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의 장애인복지법에선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간, 뇌전증,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로 구분된다. 장애 등급제가 2019년에 폐지되면서 장애정도는 현재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나뉜다(장애인복지법, 2021).

한편, 장애의 정의가 주류사회에서 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기반으로 손상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았다(조상은 외, 2017). 그 이후 사회적,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국제장애분류기준(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을 통해 장애를 정의하였다(조상은 외, 2017). ICIDH 기준이 국제기구에 의해 장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다수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의료적 장애 모델’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ICF가 2001년에 등장하였다. ICF에 따르면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며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 조건과 상황적 요인에 속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유동철, 2013). 따라서 신체적 장애보다는 기능적 장애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황수경, 2004). ICF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생물학적 중심성에 머물러 있어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ICF가 신체적 장애의 측면보다는 기능적 장애인의 측면을 강조함에 따라 ‘사회적 장애 모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도현, 2009: 65). 한편, '사회적 장애 모델'은 분리에 반대하는 신체장애인 연합인 UPIAS(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UPIAS는 장애를 손상과 장애로 구분하여 손상은 "사지의 일부나 전부가 부재한 것, 또는 사지, 기관, 몸의 작동에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한다. 장애는 "손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거의 또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당대의 사회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한"을 의미한다(김도현, 2009: 61). 의료적 장애 모델은 개인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적 장애 모델은 손상이 신체가 불완전하지만, 손상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조치의 부재가 장애를 형성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UPIAS의 정의 및 ICF의 기능적 장애를 기반으로 장애를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는 국내의 장애인 복지법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삶은 실제로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장애인의 삶은 의료적 장애 모델을 중심으로 기능 제약뿐 아니라 주류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신체적 손상을 기반으로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Goffman (1963)은 낙인(Stigma)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고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오염되고, 가치 절하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낙인이 구성되는 세 가지 유형으로서 첫째 유형이 장애, 기형, 두 번째가 중독, 부정직, 세 번째가 인종, 종교, 민족, 젠더임을 지적하면서 장애가 사회적 단위에 의해 구성되는 대표적 낙인임을 설명하였다(Garland-Thomson, 2015: 60). 이러한 낙인은 장애인을 향한 편견, 차별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험뿐 아니라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향한 태도 및 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이지수, 2011). 낙인은 장애 당사자 개인의 내적 가치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화된 타자화(Othering) 및 차별(discrimination)의 형태로 발전된다. 타자화는 낙인 및 고정관념과

유사한 개념인데, Mik-Meyer (2016)에서는 시각 장애를 가진 직장 동료들을 비장애인 동료들이 복장 도착자나 동성애자들처럼 자신들과 다르다고 구성하는 집단과 비교하면서 구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장애를 상징적인 '타자(Otherness)'로 여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가 협소한 범위에 들어가는 능력(비장애인 중심)만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다 보니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진다(Wendell, 2013: 123, 130).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메커니즘은 다차원적인 사회 분야, 특히 노동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단순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이 생기는 기회를 잃는 것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불인정을 의미한다(김도현, 2009: 153).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서비스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즉,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으로서 소비자 참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 참여는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참여를 의미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적 집단(비장애인)에서 소비자(장애인)로의 권력(power) 이동에 대한 논의를 수반한다. 복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완전한 무력함(powerlessness)을 경험하였고, 자신들과 반대로 권력을 가진 집단과 싸우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하였다(Drake, 1992). 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소비자 참여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전달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달자와 함께 서비스를 개선하고 변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관여가 이루어졌을 때 전문가들과 서비스 이용자들 상호 간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Cameronet al., 2019). 이렇게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 하나인 '장애를 갖는 것은

도움과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Fine & Asch, 1988)을 뒤집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적용해보자. 앞서 논의된 장애인을 향한 낙인과 배제를 토대로 다수의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조차 장애인이 타인을 돕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이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 등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김호일 외, 2003; 박화석 외, 2003; 김정배, 2002; 하만두 외, 2012; Paradis et al., 2017). 또한 전체 인구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21.4%임에 반해(행정안전부, 2017),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3.9%(보건복지부, 2014)로 비장애인보다 턱없이 낮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 수혜자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비장애인과 같이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바라보지 못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사회조사(2015) 데이터를 활용한 한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낮은 참여율에 비해 자원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의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은 3.7시간으로 전체 응답자 집단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이종화 & 손영은, 2020). 자원봉사 행동의 총량 자체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님이 확인됨으로써 장애인 또한 자원봉사의 주체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가 장애인의 시민권 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잠재적 봉사자로 인지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능력을 가치 절하 및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성은, 2009 재인용). 자원봉사가 개인의 삶의 질 및 사회 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역할이 장애인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및 영향요인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Schwarz & Strack, 1988).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활용되기도 하였다(Barbatoet al., 2004; Vittersøet al., 2002). 이처럼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질을 표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된다. 삶의 만족도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다.

첫째, Neugarten et al. (1961)은 삶의 만족도를 "열정 대 무관심, 결의와 용기, 원하는 목표와 달성된 목표 간의 일치, 긍정적인 자아 개념 및 기분 상태"라는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있고 일상적으로 기쁨을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바탕으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Barbato et al. (2004)은 가치와, 소망, 기대와 관련된 삶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정순둘, 성민현 (2012)은 삶의 만족도를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나 즐거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으로는 자아 성취와 같은 목표달성과 개인 외적으로는 사회적 수용과 안정감 등에서 오는 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이영하 (2000)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권혁창, 이은영, 2012 재인용). 위와 같이 학자에 따라 삶의 만족도 정의는 다르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기대와 삶의 상황에서 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상황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으로 정의한다.

한편 장애라는 특성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의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인의 손상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야기해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낙인은 사회적 범주에서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속성이며, 그 사람을 더럽히거나 낮은

지위로 떨어뜨린다(Goffman, 1997: 131).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장애를 둘러싼 외적인 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 무능력,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 로 이어지게 되는 자기 낙인이 발생한다(Corrigan & Kleinlein, 2005). 장애로 인한 낙인 및 차별 경험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수, 2011; 전지혜, 2010).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장애인의 차별 경험과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연구가 많다. 기업에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많음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며, 장애인의 차별 경험은 우울, 나쁜 주관적 건강 상태, 더 많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를 야기하였다(Bellemareet al., 2018; Hackett et al., 2020). 장애인의 낮은 삶의 질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우울감 경험률은 18.2%로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 8%가량 높고, 자살 생각률은 전체 인구의 비율인 4.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인 1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격차를 분석한 김태일, 김수용 (2009) 연구에서도 수입, 여가, 주거환경, 대인관계, 전반적 생활, 삶의 만족도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의 궤적을 파악한 유창민 (2017) 연구에서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의 우울 궤적이 불형평하며, 장애인의 우울 궤적이 비장애인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의 삶의 질, 정신건강, 삶의 만족도는 비장애인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우울감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감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 및 심리 자원 요인,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된다(김근식 & 정진희, 2007; 김성원, 2015; 김자영, 2020; 박재국, 2015; 윤희정 & 신자은, 2015; 이지수, 2011). 첫째,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결혼상태, 종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 및 심리 자원 요인으로는 건강 상태, 만성질환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타인 도움 필요 여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 노후생활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차별 경험 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 취업 상태, 사회적 지지(가족 지지), 사회참여, 노후 준비 여부 등이 있다. 위 요인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및 사회의 지지 체계와 일상생활 능력, 그리고 사회활동이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근식 & 정진희, 2007). 그리고 이지수 (2011)를 통해 장애 상태(장애 정도)가 자기 낙인 및 차별 경험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을 사회 참여가 조절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윤희정, 신자은 (2015)는 교육 수준과 소득과 같은 요인들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주된 요인들은 건강 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사회 참여 요인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승호 외, 2016; 류시문, 2004; 유광수, 2019). 이는 대체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하며,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역할 정체성이 강화되어 개인의 심리 상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처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사회 참여 요인의 하위 요인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장애인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서비스 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시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장애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적지 않았다. 첫째, Kruithof et.

al (2021)은 정신장애인들의 지역공동체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질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자원봉사는 삶에서의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목표가 생기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서 낙인 및 자기 낙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자원봉사를 통한 관계망 형성 또한 그들의 정신 건강 및 안녕감을 향상해 주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사회적 자원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에 관한 다수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Lindsay (2016)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 검토 방법론(scoping review methodology)을 적용하여 1994년과 2014년 사이에 게재된 20개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Lindsay (2016)는 문헌 검토를 통해 장애인 청소년들은 비장애인 청소년들보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체는 적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책임감 같은 기술을 배움으로써 인적 자본이 발전되었고, 그 결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 결정 능력의 향상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국외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루어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기도 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한 결과,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자부심 및 역량 강화를 겪게 되며 비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은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Rider & Hall, 2002). 외상성 뇌 손상으로 인해 중도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원봉사를 수행하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심리적 기능의 적응이 이루어짐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uelett et al., 2009).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가진 중도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신체적 변화로 인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성혜, 임원균, 2012).

90% 정도의 장애인들이 후천적 장애인임을 고려한다면(김성희 외, 2017), 자원봉사 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봉사 및 장애인을 향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한 한 젊은 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고, 시도하면서 큰사람이라 느껴요. 지금 당신에게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Roker et al., 1998).

이처럼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로서 역할을 처음 맡아보고, 새로운 상황과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Rokeret al., 1998). 다수의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과정으로 발전하며 장애 당사자의 다각적인 삶의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이 국내의 연구에선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내 연구는 크게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연구, 자원봉사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 등으로 나뉜다. 첫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영향 요인과 동기를 살펴본 연구에는 이성은 (2009), 김미희 (2017), 정운석 (2005)이 있다. 둘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로는 최명민 (2004), 김순호 (2008), 임인택 (2021), 김수진 (2013), 강경숙 외(2012)가 있다. 기타 연구로는 장애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방안에 관한 연구(김기태, 이경희, 1998)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보다 나눔 행동이 결코 적지 않음을 밝혀낸 이종화, 손영은 (2020) 연구가 있다.

위의 논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영향 요인을 살펴본 이성은 (2009)는 성별(여성), 교육 수준, 사회적 관계망, 종교 유무, 도움 제공에 대한 태도들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한 첫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김미희 (2017)은 지체장애인에 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연령, 교육 수준, 문화행사 참여 횟수, 친구 수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주관적 계층 의식,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인 직업훈련 참여 여부가 참여 행동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운석 (2005)을 통해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접촉, 교환, 책임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자원봉사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연구가 많았다.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본 연구로 최명민 (2004)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 이미지가 향상됨으로써 자원봉사의 임파워먼트 효과를 입증하였다. 김순호 (2008)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봉사단 프로그램(환경미화, 농촌 일손 돕기)을 실시하여 지도력, 적응성, 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김수진 (2013)은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 노인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벗, 산책, 마사지, 노래자랑 등 – 시행을 통해 사전, 사후의 효과를 살펴보았고 자원봉사가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강경숙 외 (2012)는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봉사활동 훈련을 했고, 그 결과 자원봉사 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습득된 기술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인택 (2012)은 장애인 탁구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자원봉사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두 변인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나눔(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이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의 행동과 차이가 나는지를 밝힌 이종화, 손영은 (2020) 연구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기부 금액과 연평균 자원봉사 시간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장애인을 나눔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을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바라보고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다. 또한, 자원봉사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무방한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분류해보면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를 적용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최명민 (2004), 김순호 (2008), 김수진 (2013), 특정 기관이나 집단에 속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정운석 (2005), 임인택 (2012), 강경숙 외 (2012)로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전체 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대규모 표본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를 통해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 사회 통합 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함의를 가짐으로써 필요한 연구라 사료된다.

제 3 절.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1. 자원봉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자원봉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1890년 William James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당시의 정의는 "개인의 성공/가식의 비율"을 의미하였다(Mruk, 2010 재인용). 이후 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자기 태도의 관점으로 사용하였다. 더불어 Blascovich et al. (1991)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 또는 중요성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라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실패, 거부, 상실과 같은 것들을 잘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도리어 불안을 생성해낼 가능성이 있다(Mruk, 2010; M Rosenberg, 1965).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지정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은 개인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Bandura & Wessels, 1994). 그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역량 생성 시스템(generative system)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일을 누군가는 형편없이, 누군가는 매우 뛰어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Bandura et al., 1999: 37).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확대하였다. 앞서 논의한 심리사회적 자원이론에 따라 자원봉사의 행위는 행위자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자신감이 생기며,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으로써 우울과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인식을 생성하게 된다(Midlarsky, 1991; Musick & Wilson, 2003).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정적 관계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규명하고 있다. 김욱, 송미영 (2006)은 대학생의 치매 지원센터에서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두 요인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경험이 자신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을 주기도 하였는데,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의 연장선에서 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음을 고려할 때(Van Willigen, 2000), 현재 하는 일에서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은퇴 시기를 직면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는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되었다(Müller et al., 2014).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시기에는 자원봉사자로의 역할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 자체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Brown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소속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고함으로써 자원봉사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었다.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인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주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 국외 연구로는 Kruithof et al. (2021)와 Lindsay (2016)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로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고, 최명민 (2004)의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가 향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임인택 (2012)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장애로 인한 자기 낙인 및 사회의 낙인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Corriganet al., 2006)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가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2.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꽤 선명하게 보고되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3; Caprara et al., 2006; Crockeret al., 1994; Paradise & Kernis, 2002; Siddiqui, 2015). Baumeister et al. (2003)은 자아존중감과 행복, 건강한 삶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자아존중감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adise and Kernis (2002)는 자아존중감의 정도뿐 아니라 안정성이 삶의 다방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안녕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의 효과는 개인의 자치권 및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 또한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변인은 정적 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고되었다(Siddiqui, 2015). 더불어 자신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믿음 - 자신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및 대인관계를 잘 다룰 것 - 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은 수준의 자아개념,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prara et al., 2006).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장애인의 삶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에서 두 변인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화 & 신은경, 2017; 김은라 외, 2015; 남연희 외, 2011; 연은모 & 최효식, 2019; 이준상, 2010).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하게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은 아니다. 위의 요인들과 함께 차별 경험과 인식,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들을 포함하여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논의된 부분들을 정리하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두 변인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 연구의 동향과 유사하다.

3.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을 종합한다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자원들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자기 낙인을 찍으며 자신을 가치 절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 수혜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환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삶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양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 연구에선 장애인의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자체가 드물며, 국외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 안녕감 등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는 존재하지만, 위 요인들의 매개 효과를 본 논문은 드물었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한 논문을 살펴본다면, Brown et al. (2012)에서

자원봉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소속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세 요인 모두 간접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매개 요인으로 자원봉사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본 Müller et al. (2014)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은퇴 시기를 직면하는 55 세-74 에의 집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가 안녕감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중년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있다(정신섭 & 장혜진, 2015). 검증 결과 자원봉사는 삶의 질에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직, 간접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장배 & 송진영 (2021) 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직접적으로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 역시 자원봉사 활동과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데, 김정애 (2021)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했을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 자원을 매개로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는 타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제 3 장.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논의된 연구 문제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가설 1]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문제 2]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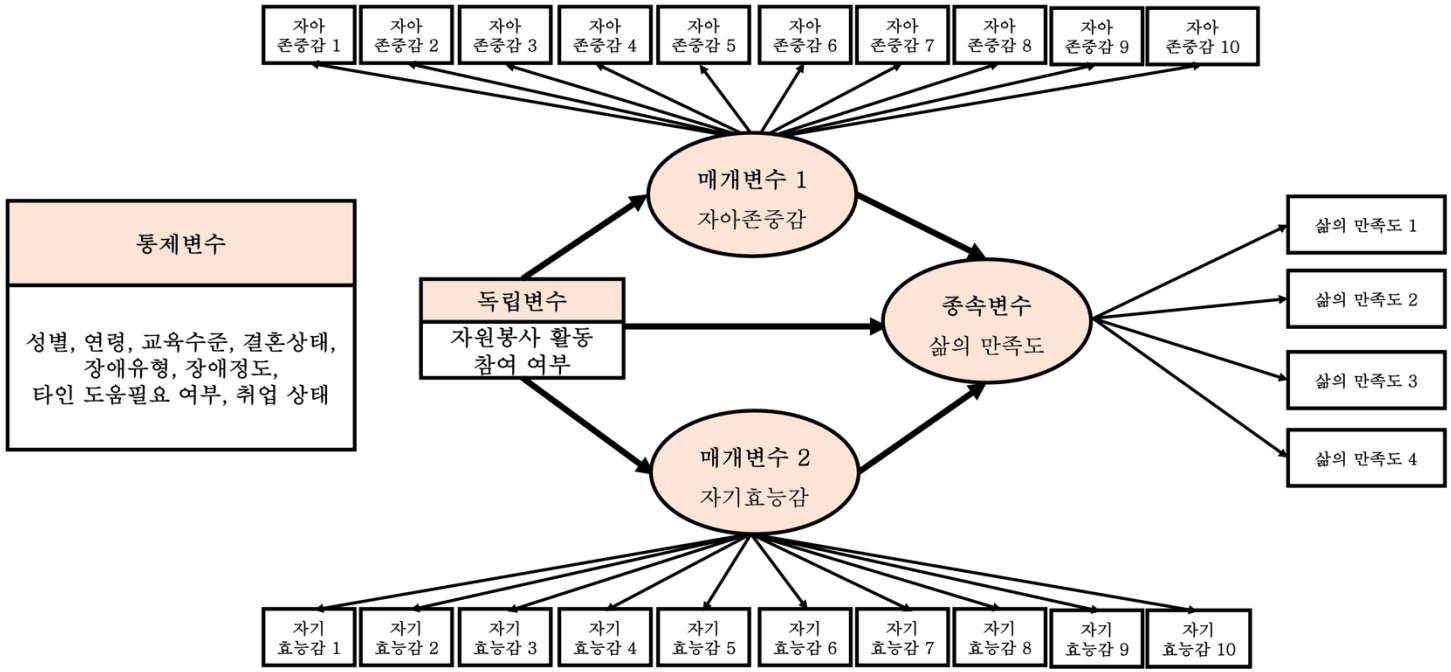
[연구 가설 2]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 문제 3]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3]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모형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및 변수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자원봉사는 어떠한 의미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질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웨이브 5차조사)를 횡단적으로 이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는 종단조사이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시장 이동과 그에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을 도출하고, 높은 패널 유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다른 패널 데이터 보다 차별성을 지닌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20) 1차 조사의 응답 패널은 만 15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 4,577명이었으나 표본의 이탈로 5차 조사에는 총 3,907명 표본이 응답을 하였으며(원 표본 유지율 87.2%),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68세 이하의 표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의 표본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명부를 기반으로 지역,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연령, 경제활동 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본 추출을 하였다.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상 추출(two phase sampling)을 이용하였다. 이상 추출법은 중복추출 또는 이중추출(double sampling)이라고도 하며, 확률 표본 방법을 이용한다. 이는 모집단으로부터 큰 표본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김재광, 2008). 본 패널 조사에는 행정구역을 나누어(시, 읍면동) 표본을 추출하는 1단계 집락추출법을 통하여 장애인 표본을 추출한 뒤(1상), 장애유형, 장애등급,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적정 수준의 장애인(2상)을 층화 추출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20).

장애인 고용 패널은 고용에 관한 문항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문항도 포함이 되어있어 사회 참여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인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고용 패널 이외에 한국복지패널에서도 부가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나, 이들 조사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를 모두 포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자료는 장애인 고용 패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전체 패널 3,907명 중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문항에 '모름/응답 거절'로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3,892명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측치 처리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1]을 이용하였다.

2.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상황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으로 정의하였는데,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의 문항 중 일상생활 만족도 하위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위 항목은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고 있는 곳', '요즘 건강상태', '한달 수입(또는 용돈)',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 생활', '일상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로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1]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자료의 요약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반응을 모두 이용하는 추정법이다. 이 추정법은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추정지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수영, 2016).

척도는 리커트 척도로 매우 불만족(1)에서 매우 만족(5)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비해당(8), 모름/응답거절(9) 등으로 응답하게 된다. '하고 있는 일' 및 '결혼생활'의 비해당, 모름/응답거절의 응답 비율은 각각 49.1%, 54.5%로 결측치로 처리하기에 사례수가 너무 많고, 분석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된 상황에서의 주관적 행복감'으로 정의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와 관련된 삶의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곳', '한 달 수입(또는 용돈)', '여가활동' 문항은 삶의 만족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5개 항목을 제외한 총 4개의 하위 항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는 지난 1년간의 봉사 활동 경험의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응답은 1=있음, 2=없음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1=있음, 0=없음 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활용되는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10문항 중 5개 문항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이며, 5개 문항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않다(1)', '그렇지않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부정적으로 측정된 문항 5개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1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은 Jerusalem and Schwarzer (1992)가 개발하고 Leeet al. (1994)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서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은 자아존중감의 4점 리커트 척도 응답과 동일하며,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또한 .95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투입되는 통제변수로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 장애유형, 장애정도, 타인도움의 필요 여부, 경제활동상태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성별은 원자료에서 1=남성, 2=여성으로 측정 되어 있던 것을 1=남성, 0=여성 으로 코딩하여 투입하였다.

연령은 변수는 연속변수로서 재구성하지 않았고, 학력은 서열 변수로 되어있어 그대로 투입하였다(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졸).

혼인 상태 변수는 1=미혼, 2=결혼/동거, 3=이혼, 4=사별, 5=별거 로 측정되어 있어 0=미혼,이혼,사별,별거, 1=결혼/동거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 유형은 1=지체장애, 2=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3=시각장애, 4=시각 외 감각장애, 5=정신적장애, 6=신체내부장애로 측정되어 있어, 지체 및 신체외부 장애를 기준 변수로 시각 및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를 더미화 하였다. 즉 시각 및 감각장애 더미 변수는 시각 및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1, 기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0으로 코딩하였고 정신적 장애 더미 변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1, 기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0으로 코딩하였다. 신체내부장애 더미 변수도 위 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장애정도[2]는 장애인복지법의 심한 장애여부 변수로서 1=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1=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0=장애의정도가 심한장애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타인의 도움필요 여부는 1=전혀 필요없다, 2=필요없는 편이다, 3=필요한 편이다, 4=매우 필요하다로 측정되어있어 그대로 투입하였다.

경제활동상태는 1=취업자, 2=미취업자로 측정되어있어 1=취업자, 0=미취업자로 코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2] 장애 정도는 2019년 4차 조사까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중/경증으로 구분되었다가, 2020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인 심한 장애(고용노동부 기준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고용노동부 기준 경증)으로 구분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20).

변수		변수 설명	측정 방법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요즘 건강상태 일상 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
독립 변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난 1 년간 봉사 활동 참여 여부	0=없음 1=있음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역코딩).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역코딩).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역코딩).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1=전혀 그렇지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자기효능감	어려운 일이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는 해낼 수 있다. 목표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쳐도 당황하지 않는다.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려움이 처하더라도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해낼 것이라 믿는다.	

		내 재능 덕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다. 어떤 문제에 부딪칠 때 나는 보통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통제 변수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연속형	
	교육수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6=대학원졸	
	혼인상태	0=미혼,이혼,사별,별거, 1=결혼/동거	
	장애유형	더미변수: 지체 및 신체외부 장애(기준 변수), 시각 및 감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내부장애	
	장애정도	0=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1=전혀 필요없다, 2=필요없는 편이다, 3=필요한 편이다, 4=매우 필요하다	
	경제활동 상태	0=미취업자, 1=취업자	

[표 1] 변수의 종류 및 측정 방법

제 2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할 때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은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으로 구분되며, 측정 오차를 추정하여 오차를 분리한 후 잠재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회귀분석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잠재변수의 활용은 개념적 수준에 있는 연구의 가설과 관찰변수의 수준에 있는 분석 수준의 불일치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어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김수영, 2016). 또한 잠재변수로서의 매개변수 활용은 측정 오차를 통제하게 되어 회귀 분석보다 도입 및 평가가 쉬우며, 한 개 이상의 매개 변인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수집된 관찰변수를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형성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귀분석보다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0 및 Mplus7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적 분석 방법을 거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척도의 내적 일관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인 장애인의 인구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의 차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 검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3](Bootstrpping)을 통해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카이제곱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하지만 표본이 커질수록 카이제곱값이 커져서 모형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RMSEA[4](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5](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을 평가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다(김수영, 2016).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표본을 거짓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복원 추출을 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다. 부트스트래핑 신뢰 구간을 구하고 하한(2.5%)값과 상한(97.5%)값 사이에 검정하고자 하는 값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김수영, 2016).

---

[3] 부트스트래핑은 비모수적인 재표집 기법으로, 연구자가 활용하는 표본을 거짓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복원 추출로 많은 개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김수영, 2016).

[4] RMSEA <.05 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면 보통 적합도, > .10 이면 나쁜 적합도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재인용).

[5] CFI, TLI > .9 이면 좋은 적합도, SRMR < .08 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강현철, 2013; Bentler, 1990).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주요 변수의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는 전체 3,892명 중 257명(6.6%)에 달한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2,537명(65.2%)으로 여성(1,355명,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19세~29세 장애인이 454명(11.7%)으로 가장 적으며, 30세~39세 장애인이 651명(16.7%), 40세~49세 장애인이 1,077명(27.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50세~59세 956명(24.6%), 60세 이상이 754명(19.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은 무학이 157명(4.0%), 초졸이 330명(8.5%), 중졸이 531명(13.6%), 고졸이 1,869명(48.0%)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대졸이 921명(23.7%), 대학원졸이 84명(2.2%)으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분석대상 3,892명 중 2,095명(53.8%)이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상태이며, 1,797명(46.2%)이 결혼 및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1,920명(49.3%)으로 과반수 정도의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가 282명(7.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508명(13.1%), 시각 외 감각장애가 354명(9.1%), 정신적 장애가 523명(13.4%), 신체내부장애가 305명(7.8%)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대상은 2,372명(60.9%)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대상 1,520명(39.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혀 필요 없음이 1,111명(28.5%), 필요 없는 편이 1,517명(3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한 편이 912명(23.4%), 매우 필요함이 352명(9.0%)로 67.5%의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는

미취업자가 1,904명(48.9%), 취업자가 1,988명(51.1%)으로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2.2% 높은 비율을 보였다.

(N=3,892)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355	34.8
	남성	2,537	65.2
연령	19세 ~ 29세	454	11.7
	30세 ~ 39세	651	16.7
	40세 ~ 49세	1,077	27.7
	50세 ~ 59세	956	24.6
	60세 이상	754	19.4
교육수준	무학	157	4.0
	초졸	330	8.5
	중졸	531	13.6
	고졸	1,869	48.0
	대졸	921	23.7
	대학원졸	84	2.2
혼인상태	미혼, 이혼, 사별, 별거	2,095	53.8
	결혼, 동거	1,797	46.2
장애유형	지체장애	1,920	49.3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82	7.2
	시각장애	508	13.1
	시각 외 감각장애	354	9.1
	정신적장애	523	13.4
	신체내부장애	305	7.8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372	60.9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520	39.1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전혀 필요 없음	1,111	28.5
	필요 없는 편	1,517	39.0
	필요한 편	912	23.4
	매우 필요함	352	9.0
경제활동상태	미취업자	1,904	48.9
	취업자	1,988	51.1

[표 2] 주요 변수의 빈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 10개의 문항을 평균화하여 살펴본 결과 최솟값은 1.0, 최댓값은 3.9, 평균은 2.78(SD=0.38)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각각 절댓값 -0.174, 0.384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 10개의 문항을 평균화해 보니 최솟값은 1.0, 최댓값은 4.0, 평균은 2.69(SD=0.64), 왜도와 첨도는 각각 -0.776, 0.13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4개 문항을 평균화한 결과 최솟값은 1.0, 최댓값은 5.0, 평균 3.51(SD=0.59), 왜도와 첨도가 각각 -0.562, 0.457로 확인되었다. 왜도는 분포가 치우친 정도를 말하고, 첨도는 자료의 뾰족한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절대값 3,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Kline, 2011).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0	3.9	2.78	0.38	-0.174	0.384
자기효능감	1.0	4.0	2.69	0.64	-0.776	0.312
삶의 만족도	1.0	5.0	3.51	0.59	-0.562	0.457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를 미참여자와 참여자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중 성별 집단은 여성은 7.6%, 남성은 6.1%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10.7%, 대학원졸 집단은 21.4%로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인 무학은 3.2%, 초졸은 5.5%, 중졸은 4.3%, 고졸은 5.0%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미혼, 이혼, 사별, 별거한 장애인(5.3%)보다는 결혼 및 동거 중인 장애인 집단(8.2%)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 장애인이 7.1%,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인이 7.1%, 시각장애인이 8.5%, 시각 외 감각장애인이 8.8%, 정신적 장애인이 1.7%, 신체내부장애인이 5.6%로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참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를 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집단은 7.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집단은 5.3%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제 활동상태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미취업자는 4.4%, 취업자는 8.7%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같은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t=0.696$, $p>0.05$)을 제외한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t=7.758$, $p<0.001$), 자아존중감($t=-6.599$, $p<0.001$), 자기효능감($t=-11.393$, $p<0.001$), 삶의 만족도($t=-6.185$, $p<0.001$)는 미참여자와 참여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참여자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는 2.16, 참여자는 1.75로 참여자가 타인의 도움이 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은 2.77, 참여자는 2.93으로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미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은 2.67, 참여자는 3.01로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미참여자의 삶의 만족도는 3.50, 참여자는 3.71로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N=3,892)

(단위: 명(%))

변수		미참여자	참여자	전체
전체		3,635(93.4)	257(6.6)	3,892(100)
성별	여성	1,252(92.4)	103(7.6)	1,355(100)
	남성	2,383(93.9)	154(6.1)	2,537(100)
	x^2 = 3.358			

교육수준	무학	152(96.8)	5(3.2)	157(100)
	초졸	312(94.5)	18(5.5)	330(100)
	중졸	508(95.7)	23(4.3)	531(100)
	고졸	1,775(95.0)	94(5.0)	1,869(100)
	대졸	822(89.3)	99(10.7)	921(100)
	대학원졸	66(78.6)	18(21.4)	84(100)
	$x^2 = 71.236^{***}$			
혼인상태	미혼, 이혼, 사별, 별거	1,985(94.7)	110(5.3)	2095(100)
	결혼, 동거	1,650(91.8)	147(8.2)	1797(100)
	$x^2 = 13.462^{***}$			
장애유형	지체장애	1,783(92.9)	137(7.1)	1920(100)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62(92.9)	20(7.1)	291(100)
	시각장애	465(91.5)	43(8.5)	508(100)
	시각 외 감각장애	323(91.2)	31(8.8)	354(100)
	정신적장애	514(98.3)	9(1.7)	523(100)
	신체내부장애	288(94.4)	17(5.6)	305(100)
	$x^2 = 27.247^{***}$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196(92.6)	176(7.4)	2372(1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439(94.7)	81(5.3)	1520(100)
	$x^2 = 6.567^{*}$			
경제활동 상태	미취업자	1,820(95.6)	84(4.4)	1904(100)
	취업자	1,815(91.3)	173(8.7)	1988(100)
	$x^2 = 29.028^{***}$			
연령	평균	46.58	46.11	46.64
	표준편차	12.66	12.71	12.66
	t = 0.696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평균	2.16	1.75	2.13
	표준편차	0.93	0.80	0.93
	$t = 7.758^{***}$			
자아존중감	평균	2.77	2.93	2.78
	표준편차	0.38	0.36	0.38
	$t = -6.599^{***}$			
자기효능감	평균	2.67	3.01	2.69
	표준편차	0.65	0.45	0.64
	$t = -11.393^{***}$			
삶의 만족도	평균	3.50	3.71	3.51
	표준편차	0.59	0.51	0.59
	$t = -6.185^{***}$			

$p^{*} < 0.05$, $p^{**} < 0.01$, $p^{***} < 0.001$ (양측검정)

[표 4]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 2 절.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을 진행하기 전에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단순 상관 관계 분석을 하였고, 분산팽창계수(VIF)와 공차 한계(Tolerance)를 확인함으로써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0.8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분산팽창계수의 값이 10 미만, 공차한계가 0.1 이상 나타나는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박완규, 2008). 모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0.8 이하로 나타났고, 분상팽창계수가 10 미만, 공차한계가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5]에서는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자원봉사참여 변수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는 자아존중감(r=.107, p<0.01), 자기효능감(r=.136, p<0.01), 삶의 만족도(r=.091,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해본 장애인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효능감(r=.509, p<0.01), 삶의 만족도(r=.441,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삶의 만족도(r=.488, p<0.01)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장애유형은 범주형 변수이기에,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 시각 및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내부장애를 성별(남성, r=.073, p<0.01), 교육수준(r=.254, p<0.01),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r=.092, p<0.01), 경제활동상태(r=.371, p<0.01)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성일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일수록, 취업자일 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령(r=-.135, p<0.01), 정신적장애(r=-.131, p<0.01), 신체내부장애(r=-.042, p<0.01), 장애정도(r=-.148, p<0.01), 타인도움필요여부(r=-.342 p<0.01)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정신적 장애일 수록, 신체내부장애 일수록,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066**	1													
3	.149**	-.368**	1												
4	.002	.328**	.068**	1											
5	.089**	.130**	.071**	.211**	1										
6	-.053**	.051**	-.013	.026	-.609**	1									
7	-.043**	-.237**	-.119**	-.289**	-.450**	-.210**	1								
8	-.028	-.018	.038*	-.063**	-.333**	-.156**	-.115**	1							
9	-.044**	-.193**	-.123**	-.277**	-.320**	-.058**	.491**	.057**	1						
10	-.073**	-.093**	-.179**	-.262**	-.190**	-.019	.289**	.013	.434**	1					
11	.215**	-.035*	.276**	.305**	.175**	.021	-.198**	-.105**	-.270**	-.377**	1				
12	-.029	-.011	.096**	.059**	.024**	.043**	-.077**	-.012	-.041*	-.108**	.086**	1			
13	.020	-.006	.194**	.215**	.122**	.044**	-.195**	.053**	-.213**	-.336**	.319**	.107**	1		
14	.071**	.081**	.291**	.313**	.228**	.071**	-.407**	-.022	-.376**	-.494**	.441**	.316**	.509**	1	
15	.073**	-.135**	.254**	.247**	.092**	.021	-.131**	-.042**	-.148**	-.342**	.371**	.091**	.441**	.488**	1

$p^{*}<0.05$, $p^{**}<0.01$ (양측검정)

[표 5]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6]

[6]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4. 혼인상태 5.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 6. 시각 및 감각장애 7. 정신적 장애 8. 신체 내부장애 9. 장애정도 10.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11. 취업여부 1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13. 자아존중감 14. 자기효능감 15. 삶의 만족도

제 3 절. 자원봉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1. 측정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2, 연구 문제 3을 확인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관찰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세 개의 잠재변수를 설정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관찰변수 10개 중 5개의 요인부하량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관찰변수를 투입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본 결과, x^2 값은 6130.405(df=270, p<0.001), CFI값은 0.873, TLI값은 0.859, RMSEA값은 0.075, SRMR값은 0.067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으며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요인부하량이 0.5 이하인 관찰변수들이 존재한다면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강현철, 2013a; 김수영, 2016: 326; 우종필, 2012), 요인부하량 값이 0.267, 0.187, -0.342, 0.247, 0.070인 자아존중감의 관찰변수들을 제거하고 모형을 새로 설정하였다. 관찰변수 일부를 제거하여 새롭게 설정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x^2 값은 1448.987(df=168, p<0.001)로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x^2은 표본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x^2 외의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아야 한다(홍세희, 2000). CFI와 TLI값은 .9 이상이면 좋은 적합, SRMR은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볼 수 있다(강현철, 2013b; 홍세희, 2000; Bentler, 1990).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CFI값은 .968, TLI값은 .964으로 적합도가 좋게 나타났으며, RMSEA는 .044, SRMR은 .042로 확인되어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x^2	CFI	TLI	RMSEA	SRMR
1448.987***	.968	.964	.044	.042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표 6] 측정 모형 적합도

본 연구의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찰변수들의 표준화된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 5개 관찰변수 중 한개의 관찰변수를 제외하고는 추정치가 0.6 이상 나타나고 있으며, 각 관찰변수의 t값이 p<0.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종필, 2012)[7]. 또한 잠재변수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계수가 .186(p<0.00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113(p<0.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가 .143(p<0.001)로 나타나 모두 크지 않은 상관을 보인다. 상관계수를 통하여 세 개의 요인이 충분히 구별됨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따라서 다음 단계의 분석인 구조 모형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조 모형 분석 결과

1) 연구 모델의 적합도 검증 및 모수 추정치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추정치를 확인하기 전에 구조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x^2 값은 3462.479(df=326, p<0.001), CFI값은 .928, TLI값은 .916, RMSEA값은 .050, SRMR값은 .080로 모형의 적합도가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였다.

[7] 구체적인 측정 모형의 표준화된 추정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x^2	CFI	TLI	RMSEA	SRMR
3462.479***	.928	.916	.050	.080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표 7] 구조 모형 적합도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수들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관계를 확인한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구 문제 1, 2, 3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다른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043, p<0.05), 자기효능감에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052, p<0.001). 이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476, p<0.001), 또 다른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또한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202, p<0.001).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역시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로			추정치(β)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b)
성별	→	자아존중감	-0.028	0.014	-0.031*
연령	→	자아존중감	-0.001	0.001	-0.016
교육수준	→	자아존중감	0.048	0.007	0.130***
혼인상태	→	자아존중감	0.074	0.015	0.094***
장애유형2[8]	→	자아존중감	0.019	0.016	0.020
장애유형3	→	자아존중감	-0.119	0.023	-0.102***
장애유형4	→	자아존중감	-0.039	0.024	-0.027
장애정도	→	자아존중감	-0.022	0.016	-0.027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자아존중감	-0.104	0.008	-0.244***
경제활동 상태	→	자아존중감	0.180	0.015	0.227***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자아존중감	0.069	0.015	0.043*
성별	→	자기효능감	-0.044	0.016	-0.031*
연령	→	자기효능감	0.002	0.001	0.045***
교육수준	→	자기효능감	0.090	0.008	0.159***
혼인상태	→	자기효능감	0.093	0.018	0.077***
장애유형2	→	자기효능감	0.009	0.019	0.006
장애유형3	→	자기효능감	-0.395	0.028	-0.223***
장애유형4	→	자기효능감	-0.035	0.029	-0.015
장애정도	→	자기효능감	-0.061	0.019	-0.049**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자기효능감	-0.186	0.010	-0.287***
경제활동 상태	→	자기효능감	0.273	0.018	0.226***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자기효능감	0.127	0.031	0.052***
성별	→	삶의 만족도	-0.003	0.013	-0.004

[8] 분석의 용이를 위하여 장애 유형을 지체 및 신체외부 장애를 참조변수로 하여 더미화 하였다. 장애유형2는 시각 및 감각장애, 장애유형3은 정신적 장애, 장애유형4는 신체내부장애의 더미 변수이다.

연령	→	삶의 만족도	-0.006	0.001	-0.197***
교육수준	→	삶의 만족도	0.000	0.006	-0.001
혼인상태	→	삶의 만족도	0.136	0.014	0.169***
장애유형2	→	삶의 만족도	0.004	0.015	0.005
장애유형3	→	삶의 만족도	0.078	0.022	0.066**
장애유형4	→	삶의 만족도	-0.007	0.021	-0.005
장애정도	→	삶의 만족도	0.055	0.015	0.068***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삶의 만족도	-0.034	0.008	-0.079***
경제활동 상태	→	삶의 만족도	0.088	0.014	0.111***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삶의 만족도	0.026	0.024	0.016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0.480	0.029	0.476***
자기효능감	→	삶의 만족도	0.134	0.017	0.202***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표 8] 구조 모형 분석 결과

3) 통제 변수 분석 결과

다음으로 [표 8]의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통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육수준(b=.130, p<0.001), 혼인 상태(b=.094, p<0.001), 경제활동상태(b=.227, p<0.001), 자원봉사 활동 참여(b=.043, p<0.05)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정신적장애(장애유형3, b=-.102, p<0.001), 성별(b=-.031, p<0.05),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b=-.244, p<0.001)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동거일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일수록, 지체 및 신체외부 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일수록,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의 다른 통제변수인

연령, 시각 및 감각장애(장애유형2), 신체내부장애(장애유형4), 장애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른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통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b=.045, p<0.001), 교육수준(b=.159, p<0.001), 혼인상태(b=.077, p<0.001), 경제활동상태(b=.226, p<0.001), 자원봉사참여(b=.052, p<0.001)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b=-.031, p<0.001), 정신적장애(장애유형3, b=-.223, p<0.001), 장애정도(b=-.049, p<0.001),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b=-.287, p<0.001)은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및 동거 상태에 있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반면, 남성일수록,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일 수록,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타인의 도움이 더 필요할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시각 및 감각장애(장애유형2), 신체내부장애(장애유형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통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혼인상태(b=.169, p<0.001), 정신적장애(장애유형3, b=.066, p<0.001), 장애정도(b=.068, p<0.001), 경제활동상태(b=.111, p<0.001)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연령(b=-.197, p<0.001),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b=-0.079, p<0.001)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결혼 및 동거 중인 상태일수록, 지체 및 신체외부장애인보다 정신장애인일수록, 장애정도가 중증일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며,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 참여 등의 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는 효과분해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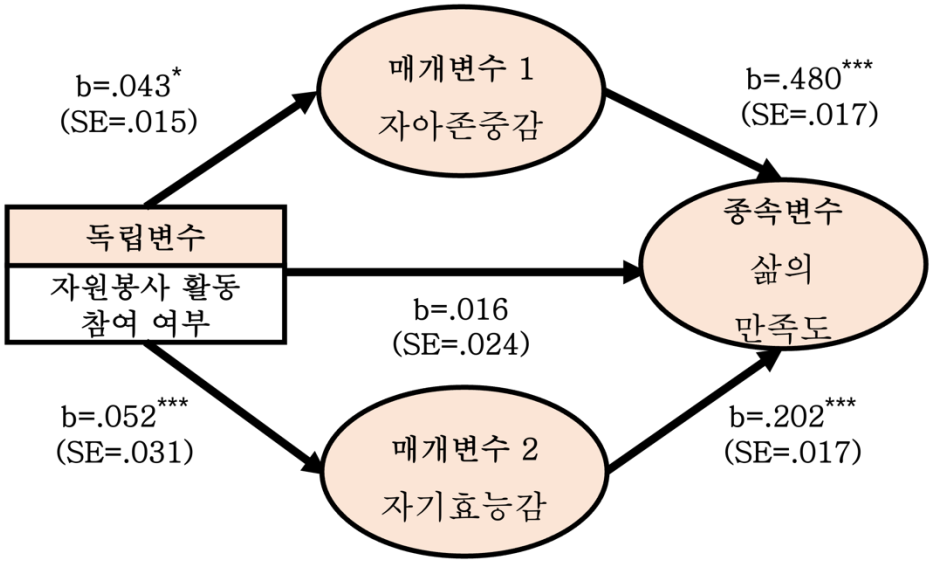
3. 효과분해: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2와 3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관계에 대한 총효과, 직접효과,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직접효과를 제외한 총효과와 두 개의 매개효과 모두 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표의 내용처럼 총효과 및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개의 효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영, 2016: 208). 직접효과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효과가 유의한 것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두 매개변수의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해본다면, 매개효과 검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장애 당사자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활동 중 하나인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 개인의 심리자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향상함으로써 개인의 안녕감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는 <그림 3>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다.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Lower Bounds(2.5%)	Upper Bounds(2.5%)	p 값
총효과	0.076	0.025	0.047	0.017	0.077	0.002
직접효과	0.026	0.022	0.016	-0.011	0.043	0.243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0.033	0.012	0.021	0.006	0.016	0.006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0.017	0.022	0.016	0.005	0.016	0.000

[표 9] 최종 분석 모형의 효과분해



<그림 3> 주요변수 간 구조적 관계(최종 분석 모형)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차 웨이브 5차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응답 패널 3,907명 중 자원봉사 활동 참여 경험에 대해 응답을 한 3,892명의 장애인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고,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를 시행하였다. 추가로 주요 변수들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 관계 분석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 모형 검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에 총효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4$, $p<0.05$).

둘째, [연구문제 2]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043, p<0.05),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b=.476, p<0.001), 자아존중감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13, p<0.05).

셋째, [연구문제 3]은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052, p<0.001),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b=.202, p<0.001), 자기효능감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08, p<0.05).

제 2 절. 연구 결과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심리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절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논의를 해볼 것이다.

1.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b=.016, p>0.05), 두 매개변수를 통해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수행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r=.091, p<0.01),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투입된 모형에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b=.028, p<0.05),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b=.013, p<0.05),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b=.008, p<0.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참여 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는 총효과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완전매개의 관계에 있다.

이를 심리사회적자원 이론을 적용해본다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접근성 향상과 그에 따른 긍정적 자기 평가 등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갖는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 배제, 낙인 등으로 낮아진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위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검토한 선행 연구 중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자원봉사와 우울감, 삶의 질,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의 두 관계만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우울과 삶의 만족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비록 본 연구처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것은 아니나, 자원봉사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선행 연구들과의 결과와 다르다(정은희 & 강상경, 2014; Kim & Pai, 2010; Musick & Wilson, 2003; Piliavin & Siegl, 2007; Rietschlin, 1998; Thoits, 2012). 이는 여러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자원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변인을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국외와 국내 모두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은 장애인을 분석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아존중감, 자신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성,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었다(김수진, 2013; 김순호, 2008; 최명민, 2004; Kruithof et al., 2021; Ouellet et al., 2009; Roker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와 동일한 연구 모형을 토대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형을 기반으로 추가 분석을 하였고, 매개 변수들이 없는 모형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모형 자체는 개인이 어떤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변수들을 투입한 것이 심리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연구 모형이라 볼 수 있다. 추가 분석의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9]

둘째,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우울과 삶의 만족도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상의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비장애인과 비교해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Pai (2010)의 연구에서는 3,617명의 대상 중 40%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Musick and Wilson (2003)에선 23%의 대상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안녕감 사이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Brown et al. (2012)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의 비율은 43%이며, 이와 유사한 연구 중 하나인 Müller et al. (2014)에선 자원봉사 활동 참여의 비율이 5,564명의 대상 중 20.3%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인 Ouellet et al. (2009)에서는 연구 대상 208명 중 54명의 장애인(26%)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국내 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전체 장애인 3,892명 중 257명이 참여해 6.6%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낮은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총효과, 간접효과, 유의하지 않은 직접효과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강력한 매개 변수들이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9]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제외한 모형 분석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의 차이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은희 & 강상경 (2014)와 Kim & Pai (2010)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이후의 변화를 지속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고, 기타 선행연구들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이 아닌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의 참여 여부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시간, 지속성, 유형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면 직접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첫째로, 장애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향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김욱 & 송미영, 2006; Brown et al., 2012; Müller et al., 2014; Rietschlin, 1998). 또한,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들에서도 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최명민, 2004; Kruithof et al., 2021; Lindsay, 2016). 위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자원봉사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이 만족감을 높여준다는 Baumeister

et al. (2003)의 연구,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Crocker et al. (1994)와 Paradise and Kernis (2002)의 연구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화 & 신은경, 2017; 김은라 외, 2015; 연은모 & 최효식, 2019; 이준상, 2010).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장애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욱 & 송미영, 2006; 임인택, 2012; Brown et al., 2012; Müller et al., 2014).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양적, 질적 연구들에서도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임인택, 2012; 최명민, 2004). 다수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자신이 직면한 상황을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믿음인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Caprara et al. (2006)에선 비장애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높은 자기효능감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Siddiqui (2015)에서도 비장애인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본 결과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남연희 외 (2011), 연은모 & 최효식 (2019)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활동이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기효능감 또한 자아존중감과 같이 완전매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는 자원봉사와 심리사회적 자원, 삶의 만족도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Musick and Wilson (2003)의 이론적 모형과 동일하다.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심리 자원 및 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타자화와 낙인으로 인해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장애인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소속감 및 사회 정체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 자원이 강화된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삶에 대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체도 중요하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강화와 심리자원들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각각 매개하는지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인을 기존의 선행연구와 같이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 주체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써 장애를 타자,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의료적 관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의 관점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과거에는 생물학적 중심성, 개인의 기능 제한으로 장애를 정의했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장애는 개인의 불행이나 결함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치료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손상을 없애거나 장애를 극복하며, 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김진우, 2007). 즉 구조화된 체계 내에서 장애인은 '타자'로, '서비스 대상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료적 관점과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 장애는 더는 개인의 손상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며, 손상을 가진 개인을 사회의 적극적 조치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활동의 주류적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의 적극적 조치의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장애임을 주장하는 관점이 '사회적 장애 모델'이다. 이 모델의 관점에서는 장애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타자화하거나 결함이 있음으로써 주체성이 떨어지는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접근하였다. 사회적 장애 모델이 등장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을 가진

자원봉사 활동을 장애인에 적용하여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국외 및 국내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봄으로써 장애를 타자,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의료적 관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장애 모델의 관점을 적용했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Musick and Wilson (2003)의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어떻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경로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은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의 접근성을 증가하여 자원봉사자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usick and Wilson (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즉,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사회의 낙인, 배제, 차별 등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이지수, 2011; 전지혜, 2010; Corrigan & Kleinlein,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장애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의 심리 자원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며,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장려할 방안을 고려하는 것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 자료인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2차 웨이브 5차 조사)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장애인이 아닌 장애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장애인의 자원봉사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본 국내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외 장애인들의 경험을 국내 연구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정책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국내의 상황도 동일할 것이다고 추측하는것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원봉사 경험을 양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는 활동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뿐 아니라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던 의료적 관점에서 권리의 보장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모델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유동철, 2013). 하지만 이러한 실태와 달리 학계와 실천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앞서 논의한 '소비자 참여'의 관점 적용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비스 전달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전달자 역할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장애인 자원봉사자 인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자원봉사 경험이 적고,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자원봉사 경험은 2014년 기준 3.9%에 달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33.9%로(이원규 외, 2020) 나타나 시기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극명한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은 15.1%에 불과하고, 초졸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이 74%가 넘는다(김성희 외, 2017; OECD, 2020).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활동 연계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만족감을 향상하며, 지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희망하지만,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김기태 & 이경희, 1998),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유하거나 제안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수진, 2013; 최명민, 2004). 하지만 이는 자원봉사의 개념적 특성 중 하나인 자발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며, 온전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의 개념, 효과와 자원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및 자세, 업무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류기형 외, 2013). 이병순 & 김욱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훈련이 봉사활동 지속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의 습득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성취감,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진 & 최명구, 2015).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교육 받을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 유형과 정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장애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유형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김순호 (2008)에서 실시한 지적 장애인 환경미화,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중증 발달 장애인이 노인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말벗 봉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마다 상이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지체장애가 7.1%,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가 7.1%, 시각장애 8.5%, 시각 외 감각장애가 8.8%, 정신적 장애가 1.7%, 신체내부장애가 5.6%로 정신적 장애가 매우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참여 여부의 극명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장애 유형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모두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신적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방안 중 하나가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자원봉사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고 실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많지 않다. 어떠한 경로로 자원봉사에 참여 하게 되었는지, 자원봉사의 유형과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이터가 부재한 것은 장애인을 서비스 대상자로만 바라보았던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 및 여러 복지 기관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처럼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황 및 욕구 등을 볼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적절한 장애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지 및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접근이 수월한 공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원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희망 여부를 조사한 연구는 부재하지만, 김기태 & 이경희 (1998)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 132명의 장애인 중 75.7%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원봉사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미희 (2017)는 지체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행동에 관한 요인을 분석했고, 그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 참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하였다. 즉,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능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 및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정도가 전혀 필요 없거나(10.4%), 필요 없는 편(6.5%)의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한 편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4.1%, 2.0%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의 법률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노인복지법에선 노인의 사회참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 23 조(노인사회참여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선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려는 법적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다[10].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한 조항이 부재하다. 물론 제1조(목적)에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는 있으나, 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을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10]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Info/service

기구를 설립하거나 현재 마련되어있는 중앙 및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서비스 대상자라는 사회적 관념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하며,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또한 생산적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 참여를 장려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을 또 다른 자원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및 만족도 또한 개선될 수 있고, 국가가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장애인 복지법 제1조(목적)이 제시하는 것처럼,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기 때문에 예방해야 하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의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장애인은 오로지 보호의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애인은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의료적 모델만이 아닌 사회적 장애 모델, 인권 모델, 역량접근모델, 문화 모델 등이 등장하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Degener, 2017). 이러한 모델들의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보호나 복지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모델의 기본 전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선 장애를 정의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들의 뒷받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손상을 가진 개인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20년 장애인고용패널 조사(2차 웨이브 5차 조사)를 종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횡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보완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지만, 역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진 장애인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패널 데이터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기에 충분한 표본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의 표본 수는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매우 적어 장애 유형별, 정도별 등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어려웠다. 구조방정식이 활용하는 최대우도 추정 방법은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시키는 큰 표본에 기반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검정 결과를 믿기 어렵다(김수영, 2016: 36). 따라서 집단에 따라 매개효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다집단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학자 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50개 이상의 사례가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다(김수영, 2016). 즉, 매개효과의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집단들 각각의 표본수도 150개 이상이 되어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문항에 응답한 장애인 3,892명 중 참여로 응답한 장애인은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자체에 참여한 장애인 표본이 적다 보니 장애 유형별, 정도별 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매개효과가 집단 간 동일한지를 검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가 137명(7.1%),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가 20명(7.1%), 시각장애 43명(8.5%), 시각 외 감각장애가 31명(8.8%), 정신적 장애가 9명(1.7%), 신체내부장애가 17명(5.6%)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며 정신적 장애인의 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별 표본수가 다집단 분석을 하기에 충분하다면, 정신적 장애인의 매개효과가 다른 장애 유형의 집단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후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여 장애 유형별 또는 정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다면 심리 자원의 매개효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좀 더 다양한 차이, 예를들어 자원봉사 시간과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지난 1년간 봉사 활동 참여 여부'만을 묻는 문항으로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자원봉사 활동 시간은 어느 정도 였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유형, 시간, 지속성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만족도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Appau & Churchill, 2019; Carret al., 2018; Piliavin & Siegl, 2007; Van Willigen, 2000). 이렇게 자원봉사의 여부뿐 아니라 자원봉사의 유형, 참여 시간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다각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장애인의 자원봉사 경험을 질적으로 확인하거나, 자원봉사 시간, 지속성, 유형에 따른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검증하였으나 자원봉사 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변인들을 투입하지 못하였다. Musick and Wilson

(2003)의 심리사회적 자원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자원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임을 가지는 횟수, 친구들과 친인척과 대화를 나누거나 만나는 빈도 등의 항목들이 있다면 사회적 자원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원 변인이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경숙, 김영준, 홍인실. (2012). 지역사회중심 봉사활동 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자원봉사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7*(2), 91-123.

강동욱. (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15*, 7-32.

강현철. (2013a).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강현철. (2013b).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2), 653-668.

고재욱, 신기원, 황인옥, 최승완. (2017). 자원봉사론.

권혁창, 이은영. (2012).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2), 61-85.

권현수. (2009). 노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8*(5).

김근식, 정진희. (2007). 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1), 47-70.

김기태, 이경희. (1998).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age of Manpower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n Volunteer Activity]. *社會福祉硏究*, *8*(-), 143-184.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김미희. (2017). 지체장애인의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4), 77-104.

김성원. (2015). 고령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김성희, 이민경, 오미애, 오욱찬, 황주희, 권선진, 오다은. (2019). 2020 년 장애인 실태조사 사전연구. In: 보건복지부.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오다은, 강동욱, 권선진. (2017). *2017 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이난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2014). 2014 년 장애인 실태조사. In: 보건복지부.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학지사.

김수진. (2013). *만성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Publication Number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상주.

김순호. (2008). *장애인봉사단 활동이 지적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호, 박재국, 김은라. (2016). 지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삶의 질. *장애와 고용*, *26*(4), 173-195.

김욱, 송미영. (2006).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30-360.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1), 27-54.

김자영. (2020). 발달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30*(1), 25-50.

김재광. (2008). 표본조사론. In: 자유아카데미.

김정배. (200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33-173.

김정애. (202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ies on Satisfaction Through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인문사회 21*, *12*(2), 773-788.

김정옥, 박자영. (2007). 도예활동이 노인의 우울정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25*(6), 95-109.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진우. (2007).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183-209.

김태일, 김수용. (2009).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격차 분석. *세미나·토론회*, 263-284.

김호일, 박화석, 이인경. (200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이 부적응 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대인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8*(3), 403-425.

남연희, 채인석, 이승준, 천덕희, 김영삼. (2011). 척수손상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2), 1-22.

류기형, 남미애, 박경일, 홍봉선, 강대선. (2013). *자원봉사론*. 양서원.

류시문. (2004).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구 연세사회복지연구)*, *11*, 100-129.

민장배, 송진영. (2021). 남성과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9*, 177-200.

박완규. (2008). 홍성표 역, 2009,[(Gujarati 의) 계량경제학]. *Gujarati, DN, and Porter, DC*.

박재국. (2015). 중증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와 삶의 만족도.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58*(1), 1-28.

박화석, 김호일, 이인경. (2003).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 활동이 비장애 학생의 장애에 대한 태도와 대인 및 사회적 책임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1*(2), 83-99.

배진희. (2009). 고령노인의 일상생활기능 저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사회활동참여와 노인학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353-368.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 등록 현황.

신권섭, 조인주. (2013). 대학생의 구직기술,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과학연구, 29*(3), 143-160.

신유리.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지체와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2), 299-323.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3).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 (Social Inclusion) 의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배제에서 포함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5-28.

연은모, 최효식. (2019).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장애 수용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생활만족도, 직무만족도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33-152.

오욱찬. (2018).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8*(9), 47-58.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유광수. (2019). 임금근로장애인의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2*, 33-51.

유동철. (2013).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Social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y]. 학지사.

유창민. (20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불형평 정도: 2006 년부터 10 년간의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150-183.

윤희정, 신자은. (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이금진, 최명구. (2015). 특수교육전공자의 자원봉사자 교육이 자원봉사자의 의사소통기술발달과 현장에서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433-462.

이민화. (2015). 정신장애인이 진행하는 접촉-교육 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자기낙인에 미치는 영향: 강연활동의 자기효능감 경험분석.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49-375.

이성은. (2009).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13*, 217-241.

이원규, 정희선, 서종희, 최은희, 박윤애, 정진경, 권미영, 김유나. (2020). 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

이인수. (2001). 한국 노인자원봉사의 의미와 실태. *노인복지연구*, *12*(1), 25-45.

이종화, 손영은. (2020). 장애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행동에 관한 연구: 장애는 나눔을 제약하는가? *장애의 재해석*, 189-222.

이준상. (2010). 간질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0*(1), 5-24.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임인택. (2012). *장애인의 봉사활동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Publication Number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서산.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9-129.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5*, 51-80.

정신섭, 장혜진. (2015).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Mature women`s volunteer activities

and its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as a mediator of self-esteem]. *사회복지경영연구*, *2*(2), 61-81.

정운석. (2005). 정신장애인의 자원봉사 (Mental Disabled Volunteer; MDV)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41-362.

정은희, 강상경. (2014). 자원봉사와 우울 궤적의 종단적 관계: 세 연령집단 간 다집단 비교. *사회복지연구*, *45*(1), 203-230.

조상은, 이지수, 이선화, 이수연. (2017). ICF 기반의 장애사정체계 활용방안을위한 기초연구: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1-155.

최명민. (2004). 정신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임파워먼트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3), 89-112.

하만두, 유은정. (2012). 장애 이해 프로그램 적용이 고등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영상자료 활용과 봉사활동. *특수아동교육연구*, *14*(1), 203-2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20). 2020 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황성혜, Seong, H., 임원균, Won, G. (2012). 우울과 장애수용이 중도장애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Depression and Disabled Person's Acceptance of His/Her Condition on Suicidal Ide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ue to Accident]. *재활복지*, *16*(3), 245-268.

황수경. (2004). WHO 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 (ICF) 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4*(2), 128-149.

Appau, S., Churchill, S. A. (2019). Charity, volunteering 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0*(5), 1118-1132.

Bandura, A., Freeman, W., Lightsey, R. (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In: Springer.

Bandura, A., Wessels, S. (1994). Self-efficacy. In: na.

Barbato, A., Monzani, E., Schiavi, T. (2004). Life satisfaction in a sample of outpatients with severe mental disorders: a survey in northern Italy. *Quality of Life Research*, *13*(5), 969-973.

Barnes, C., Oliver, M., Barton, L., Albrecht, G. L., Thomas, C., Hughes, B., Vernon, A., Swain, J., Borsay, A., Abberley, P., Lee, P., Hahn, H., Holden, C., Beresford, P., Rioux, M. H., Mercer, G.,김도현. (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그린비.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Bellemare, C., Goussé, M., Lacroix, G., Marchand, S. (2018). Physical disability and labor market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erkman, L. F., Glass, T., Brissette, I., Seeman, T. E. (2000). From social integration to health: Durkheim in the new millennium. *Social Science & Medicine*, *51*(6), 843-857.

Blascovich, J., Tomaka, J., Robinson, J., Shaver, P., Wrightsman, L. (1991). Measures of self-esteem.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1*, 115-160.

Brown, K. M., Hoye, R., Nicholson, M. (2012).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connectednes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8*(4), 468-483.

Bruce, L. (2006). Count me in: People with a disability keen to volunteer. *Australian Journal on Volunteering*, *11*(1), 59-64.

Cameron, C., Moore, M., Nutt, A., Chambers, E. (2019). Improving understanding of service-user involvement and identity: collaborative research traversing disability, activism and the academy. *Disability & Society*, *34*(7-8), 1312-1331.

Caprara, G. V., Steca, P., Gerbino, M., Paciello, M., Vecchio, G. M. (2006). Looking for adolescents' well-being: Self-efficacy beliefs as determinants of positive thinking and happiness.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15*(1), 30-43.

Carr, D. C., Kail, B. L., Rowe, J. W. (2018). The relation of volunteering and subsequent changes in physical disability in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3*(3), 511-521.

Corrigan, P. W., Kleinlein, P. (2005). The impact of mental illness stigma.

Corrigan, P. W., Watson, A. C., Barr, L. (2006). The self-stigma of mental illness: Implications fo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8), 875-884.

Crocker, J., Luhtanen, R., Blaine, B., Broadnax, S. (1994). Collective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White, Black, and Asia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03-513.

Degener, T. (2017). A new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kker, P., Halman, L. (2003). Volunteering and values. In *The values of volunteering* (pp. 1-17). Springer.

Drake, R. F. (1992). Consumer participation: The voluntary sector and the concept of power.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7*(3), 267-278.

Durkeim, E. (1951).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JA Spaulding and G. Simpson. New York: The Free*.

Durkheim, E., Simpson, G., Spaulding, J. A.,김충선. (2005). *자살론*. 청아.

Fine, M., Asch, A. (1988). Disability beyond stigma: Social interaction, discrimination, and activism. *Journal of social issues*, *44*(1), 3-21.

Garland-Thomson, R. (2015). *보통이 아닌 몸* (손홍일, Trans.). 그린비출판사.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Goffman, E. (1997). Selections from stigma.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03*, 215.

Hackett, R. A., Steptoe, A., Lang, R. P., Jackson, S. E. (2020).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well-being in the United Kingdom: a prospective cohort study. *BMJ open*, *10*(3), e035714.

House, J. S., Landis, K. R.,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Jerusalem, M., Schwarzer, R. (1992). Self-efficacy as a resource factor in stress appraisal processes. *Self-efficacy: Thought control of action*, *195213*.

Kang, H. (2013).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Kim, J., Pai, M. (2010). Volunteering and traject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2*(1), 84-105.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na.

Krause, N., Herzog, A. R., Baker, E. (1992). Providing support to other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47*(5), P300-P311.

Kruithof, K., Suurmond, J., Kal, D., Harting, J. (2021). Volunteer work with vulnerable persons in the community: A qualitative study of social inclusion. *Journal of Social Work*, *21*(4), 696-712.

Lee, Y., Schwarzer, R., Jerusalem, M. (1994). 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Retrieved April*, *2*, 2008.

Lee, Y. j., Brudney, J. L. (2012). Participation in formal and informal volunteering: Implications for volunteer recruitment.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23*(2), 159-180.

Lin, N., Ye, X., Ensel, W. M. (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4-359.

Lindsay, S. (2016). A scoping review of the experiences, benefits, and challenges involved in volunteer work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with a disabilit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38*(16), 1533-1546.

Midlarsky, E. (1991). Helping as coping.

Mik-Meyer, N. (2016). Othering, ableism and disability: A discursive analysis of co-workers' construction of colleagues with visible impairments. *Human Relations*, *69*(6), 1341-1363.

Mruk, C. J. (2010). Self-Esteem.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1-2.

Müller, D., Ziegelmann, J. P., Simonson, J., Tesch-Römer, C., Huxhold, O. (2014). Volunteer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adulthood: Is self-efficacy the key?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8*(3-4), 125-135.

Musick, M. A., Herzog, A. R., House, J. S. (1999). Volunteering and mortality among older adults: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4*(3), S173-S180.

Musick, M. A., Wilson, J. (2003).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56*(2), 259-269.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Newmann, F. M., Rutter, R. A. (1983). The Effects of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Programs on Students' Social Development. Final Report.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Ouellet, M.-C., Morin, C. M., Lavoie, A. (2009). Volunteer work and psychological health following traumatic brain injury. *The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24*(4), 262-271.

Paradis, K. F., Misener, L. J., McPherson, G., McGillivray, D., Legg, D. (2017). Examining the impact of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parasport events on volunteer attitudes towards disability. *Sport in Society*, *20*(11), 1724-1744.

Paradise, A. W., Kernis, M. H. (2002).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s of fragile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4), 345-361.

Piliavin, J. A., Siegl, E. (2007). Health benefits of volunteering in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8*(4), 450-464.

Rider, C., Hall, C. (2002). Inclusive volunteering: Benefits to participants and community.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36*(3), 247-259.

Rietschlin, J. (1998).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48-355.

Roker, D., Player, K., Coleman, J. (1998). Challenging the image: The involvement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olunteering and campaigning. *Disability & Society*, *13*(5), 725-741.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I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warz, N., Strack, F. (1988). Evaluating one's life: A judgme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Shih, M. (2004). Positive stigma: Examining resilience and empowerment in overcoming stigm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175-185.

Siddiqui, S. (2015). Impact of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2*(3), 5-16.

Smith, D. H., Stebbins, R. A., Dover, M. A. (2006). *A dictionary of nonprofit terms and concepts*. Indiana University Press.

Sundeen, R. A. (1990). Family life course status and volunteer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single par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33*(4), 483-500.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the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74-187.

Thoits, P. A. (2012). Role-identity salience, purpose and meaning in life, and well-being among voluntee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5*(4), 360-384.

Thoits, P. A.,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15-131.

Van Willigen, M. (2000). Differential benefits of volunteering across the life cours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5*(5), S308-S318.

Vittersø, J., Røysamb, E., Diener, E. (2002). T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across cultures: Exploring its diverse meaning and relation to economic wealth. In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pp. 81-103). Springer.

Wendell, S. (2013). *거부당한 몸* (강진영, 김은정, & 황지성, Trans.). 그린비.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15-240.

Wilson, J., Musick, M. (1999).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volunteer.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2*(4), 141-168.

부 록

1. 측정 모형 추정치

측정변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1	0.646(0.011) ***		
자아존중감 2	0.505(0.014) ***		
자아존중감 3	0.662(0.011) ***		
자아존중감 4	0.677(0.011) ***		
자아존중감 5	0.726(0.010) ***		
자기효능감 1		0.811(0.006) ***	
자기효능감 2		0.729(0.008) ***	
자기효능감 3		0.757(0.007) ***	
자기효능감 4		0.789(0.007) ***	
자기효능감 5		0.793(0.006)***	
자기효능감 6		0.800(0.006) ***	
자기효능감 7		0.782(0.007) ***	
자기효능감 8		0.797(0.006) ***	
자기효능감 9		0.813(0.006) ***	
자기효능감 10		0.846(0.005) ***	
삶의 만족도 1			0.633(0.012) ***
삶의 만족도 2			0.721(0.011) ***
삶의 만족도 3			0.654(0.012) ***
삶의 만족도 4			0.732(0.010) ***

1) $p^{*}<0.05$, $p^{**}<0.01$, $p^{***}<0.001$ (양측검정), 2) 괄호 안은 표준오차

2.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모형의 분석 결과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x^2	CFI	TLI	RMSEA	SRMR
34.035***	0.992	0.975	0.064	0.014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적합도 및 모수 추정치

x^2	CFI	TLI	RMSEA	SRMR
531.434***	0.909	0.870	0.060	0.027

경로			추정치(β)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b)
성별	→	삶의 만족도	-0.022	0.014	-0.025
연령	→	삶의 만족도	-0.006	0.001	-0.191***
교육수준	→	삶의 만족도	0.035	0.007	0.090***
혼인상태	→	삶의 만족도	0.185	0.016	0.225***
장애유형 2	→	삶의 만족도	0.014	0.016	0.015
장애유형 3	→	삶의 만족도	-0.030	0.024	-0.025
장애유형 4	→	삶의 만족도	-0.030	0.025	-0.019
장애정도	→	삶의 만족도	0.037	0.016	0.044*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	→	삶의 만족도	-0.108	0.008	-0.246***
경제활동 상태	→	삶의 만족도	0.211	0.016	0.257***
자원봉사 참여	→	삶의 만족도	0.076	0.026	0.046**

$p^{*} < 0.05$, $p^{**} < 0.01$, $p^{***} < 0.001$ (양측검정)

Abstract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im, Won Jun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of the disabled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ir relationship.

In our society, the disabled are not only recognized as beings in desperate need of help from others, but have also become incompetent beings and are structurally excluded and discriminated against. The discriminatory attitude deeply rooted in various areas of non-disabled society towards the disabled has deteriorat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xperience self-stigmatization, depression, and a low level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Therefore, participation in various social areas is being discussed as

a way to improve the low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In particular, volunteer activities, one of the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have been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both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volunteer work are reported to improve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However, not only is the volunteer participation rate of the disabled lower than that of the non-disabled, but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also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studies about volunteer work targeting the disabled rather than the disabled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applied a perspective that does not view the disabled only as a client who needs services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when the disabled actually participated in volunteer work, this study looked at how their internal changes were made. Especially, the study verified how volunteer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affects psychological resources such a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ultimately life satisfaction. In addition, it was verified whethe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how will self-esteem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how will self-efficac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led'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theoretical model of the study used Musick and Wilson's (2003) psychosocial resource theory.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o identify the ques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2020 Employment Panel Survey for the Disabled

(2nd Wave 5th Survey), and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it has been reported that self-esteem completely mediat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elf-efficacy also completely mediat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oretically, first,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disability model rather than the medical model of the disability was applied by discussing volunteer activities of the disabled rather than targeting the disabled. Second, Musick and Wilson (2003)'s psychosocial resource theory was empirically identified based on data. Third, it is significant that it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type of disability, not to a specific type of disability, based on large-scale sample data.

Practically, first of all, many volunteer programs for the disabled should be developed in the field. There are things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which ar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volunteer program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articipation', the need for education for disabled volunteers, and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Next is the promotion of volunteer activities and data management in related organizations for disability and service.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or system that can support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that can promote changing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perspectives of disabilit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use of panel data only cross-sectionally, the failure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 as well as volunteer participation, and the failure to input variables other tha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Keywords : Volunteer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Psychosocial Resource Theory

Student Number : 2020-22957